

2 뉴스

교수의회 임원 8명 중 5명 사퇴, 무슨 일?

장해린 기자 sunblessyou@khu.ac.kr

교수의회 의학지회 조성훈(한의학) 교수가 의장직을 사퇴했다. 현재 제19대 교수의회 임원 8명 중 5명이 사퇴해 3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사퇴로 구성원 단체의 역할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 1월 교수의회 구성원 교수들에게 사퇴 이유를 개인 메일로 전달했다. 조 교수는 메일에서 제19대 의회에서의 총장 선임 방식, 임금 협상 회의를 진행하며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했고 소수와 다수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한 임원 중 절반 이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수의회 역할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제19대 교수의회 임원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20대 교수의회 임원을 선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사퇴가 지난 서울의회 김봉이(기초한의과학) 의장의 사퇴와 같은 맥락임을 밝혔다. 앞서 제17대 총장 선임 방식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서울지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수의회 서울지회 김봉이 의장, 김우진(기초한의과학) 사무차장이 사퇴했다. 조 교수 역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 교수의 사퇴로 제19대 교수의회 임원 8명 중 김봉이 서울지회 의장, 김우진 서울지회 사무차장을 포함한 조성훈 의학지회 의장, 김규태(치의학) 의학지회 사무차장, 안현중(생물학) 교수의회 감사

까지 의장단 4명, 감사 1명이 사퇴했다. 이로써 현재 김도균(체육학) 교수의회(국제지회장) 의장, 이준희(한의학) 교수의회 및 국제지회 사무총장, 김태현(체육학) 교수의회 감사 총 3명만 남아있다.

조 교수는 이번 사퇴에 “소수 의견이든 다수 의견이든 하나하나 모두 경청하고 설득하는 게 민주적인 교수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의회 활동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며 “비록 의학지회 의장직에서 사퇴했지만 교수라는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수의회 김도균 의장은 “지난 의회에서 총 16번의 총장 선출 관련 회의와 8번의 임금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며 “총장 투표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안에 진행할 수 있는 간선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 이를 채택했지만 조 교수는 끝까지 직선제를 주장했다”며 의사소통 부재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연봉 협상에 대해선 3.25%(S2급 기준)의 상승률을 만든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학교 사정상 3.25% 상승이 적합함에도 조교수는 끝까지 3.3%를 주장해 의견 충돌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교수의회는 교수 권익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학교를 발전시킬 의무도 있기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대화로 풀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의회는 자연 상승률을 제외한 3.25%라는 이례적인 수치의 연봉 상승을 만들어내고, 총장 선거를 잘 마무리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축제에서 공연하는 컬스라의 모습. 컬스라가 지원받던 1인당 자치회비 250원 중 50원이 총학으로 이관됐다.

(사진=대학주보 DB)

국제캠 응원단 자치회비 지원 논란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응원단 ‘컬스라(KHURS-LA)’가 학생회칙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회비를 지원받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자치회비는 총학생회(총학)를 비롯한 교내 학생자치기구의 자주적 활동을 위한 재정이자, 학생회칙 179조 1항에 따르면 자치회비는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학생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진 학생 자치 조직에만 지급돼야 한다. 서울캠퍼스 응원단은 자치회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며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한다. 학생회칙 177조 2항은 모든 재정은 투명한 사용을 해야 하며 학기마다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컬스라는 자치회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회비 예·결산안 공개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 시 자치회비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치회비는 재학생 한 명이 납부한 9,500원 중 총학생회칙이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교내 자치 기구에 분배된다. 지난해 국제캠 자치회비 납부자를 5,000명으로 가정하면, 컬스라가 받던 납부자 1인당 250원은 학기 당 125만 원에 달한다.

컬스라가 예외적으로 자치회비를 지원 받아온 사실은 새로 출범한 총학이 자치회비 비율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며 드러났다. 국제캠 총학 김준희(기계공학 2019) 부회장은 “컬스라가 자치회비를 지원받은 기간과 경위는 과거 자료 유실로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컬스라가 현재까지 자치회비를 받아온 이유에 관해 총학도, 컬스라도 잘 모른다는 입장이다.

총학 측은 보칙 11조에 따라 컬스라에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참석을 요청해 회의를 진행했다. 국제캠 총학 김미소(한국어학 2021) 회장은 “회의에서 컬스라가 제출한 지난해 자료가 미흡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50원을 삭감해 오는 1학기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생회칙 보칙 11조는 원칙상 부합하지 않는 단체가 자치회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급 여부를 중운위에서 논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인한 단체 운영 어려움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학 측은 “2학기에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관된 자치회비는 학생 전체를 위해 사용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주(환경조경디자인학 2022) 컬스라 단장은 “예·결산안이 기준에 맞지 않아 학생회와 상호 협의 하에 자치회비를 이관했다”며 “학생 모두가 쓸 수 있는 곳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양과목 절대평가, 양캠 교수진 합동 TF에서 논의하기로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양 캠퍼스(양캠)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교수진으로 구성된 ‘양캠 합동 TF’가 좁혀지지 않았던 교양과목 성적평가방식 논의를 이어간다.

합동 TF에서는 양캠이 생각하는 절대평가 도입 방식 합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성적을 퍼센트로 제한하는

상대평가 방식의 폐지를 주요 입장으로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캠퍼스(국제캠)는 교육학적 절대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성적 부여의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00개가 넘는 강의에 일일이 절대적인 기준을 부여할 수 있겠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캠 후마 김진해 부학장은 “양 캠퍼스가 바라보는 절대평가의 의미가 달라 합동 TF에서 논의하려고 한다”며 “합

의를 이뤄 절대평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공통된 목표”라고 전했다. 또한 “상대평가가 교양과목의 교육학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캠 모두 공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캠 후마 대학생위원회 조현아(주거환경학 2021) 위원장은 “양캠이 각각 생각하는 성적 평가 방향에 차이가 있어 양캠 간 논의가 이어지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다”고 말했다. 국제캠 후마 대학생위원회 공지연(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0) 위원장은 “서울캠과 국제캠이 함께 논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합동 TF는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해 양캠 후마 대학생위원회와 활발히 소통할 계획이다. 서울캠은 지난해 후마 대학생위원회와 총학생회 주축으로 학생 의견 수렴이 끝난 상태다. 반면 국제캠은 학생 의견 수렴

이 이뤄진 적이 아직 없다. 조 위원장은 “후마 학장, 부학장과 면담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국제캠 후마 대학생위원회와도 소통하며 국제캠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총학생회, 학장님과 함께 TF를 준비 중”이라며 “총학생회 측에서 설문조사 형식을 만들어 학생 의견을 받아 전문 기관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